



머리글

김도훈 라파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봄~♫

올겨울은 예년보다 그리 춥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거야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춥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겨울도 여전히 동장군의 기세에 놀려 우리들의 활동은 자유롭지 못했으며, 산천도 자신감을 잃고 얼어붙고 움츠러들어 그저 묵묵히 자리만 지킬 뿐이었지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시기도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니, 온 산천은 짝 막혀있던 혈을 뚫고 자기가 갈 곳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산과 들에서는 하늘을 향해 잎을 띄우고 강들은 굽이굽이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겨우 내, 차분히 '봄'을 기다리며 묵묵히 준비한 이들은 하느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며 각자가 준비했던 희망을 마음껏 피워내고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을 생각하면 자유와 해방이 떠오릅니다. 동장군에 의해 간혀있었고 막혀있었던 많은 것들이 기지개를 펴며 풀려나고 깨어나 잢아요. 온 대지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 '봄'이라는 시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고마움으로 이어집니다. 잘 버텨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나 봄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살면서 마음이 움츠러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고 또 하는 그것들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지금은 온 천지가 '그러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잎을 띄우고 물이 흐르게 하라!'고 사망에서 재촉하며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자연의 일부인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그러겠노라!"라고 굳게 다짐하며 희망을 갖고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나요? 여전히 마음 깊이 추운 겨울을 유지하며 뽕뽕 가두고 숨기며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수용자분들, 또 존경하는 후원회원, 봉사자, 교도관분들의 마음에도 다시 진정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육체는 간혀있어도 마음으로는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며, 절망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미움과 원망, 증오에 사로잡혀 복수의 화신으로 살아가려는 다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며,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자비하신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봄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꽃피는 이 춘삼월 봄날에 교정시설 역시 개학을 해야 함이 지당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게 개학이 늦어지지만, 저와 우리 위원회는 끊임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는 중입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수용자와 출소자, 후원회원, 봉사자, 교도관 모든 분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 속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1월 15일(수)~17일(금)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가 서울 성령수녀회영성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사제, 수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2020년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회의의 방향과 수용자들, 출소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도움을 모색하며 친교를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회사목국 실무자 워크숍



1월 17일(금)~18일(토) 사회사목국 실무자 워크숍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사회사목국의 14개 위원회의 실무자들이 모여 소외계층에 헌신적인 사랑을 전해준 ‘울지마톤즈’의故 이태석 신부 생가와 기념관, 그리고 감천 산비탈에 피난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 낙후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색다른 관광지가 된 감천문화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사목국의 정신을 고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2월 3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 강인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前 소년원 담당), 유상철 세례자요한 신부(現 소년원 담당)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새로 부임을 받은 유상철 신부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독서에 나온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에 대해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단절된 마음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과 닮았다”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되이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고, 특별히 간헐있는 이들의 마음 중심에 하느님이 자리 잡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 4월 후원회원 월례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려졌습니다" (로마 5, 20)

강정욱 제노베파_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책임봉사자

개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교정사목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동부구치소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느꼈던 그 반가움과 포근함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 은혜스러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마도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많은 이곳에,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봉사자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날도 여느 때처럼 미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젊은 미결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젊은이가 어찌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기에 들어와 저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걸까? 우리 봉사자들에게는 그 젊은이가 한없이 애처로워 보였다. 게다가, 독서를 하는데 시작 전에도 제대에 공손히 절을 하더니, 끝나고 나서도 공손히 절을 하고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었다. 전례가 몸에 밴 듯 익숙해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렸을 때 성당에 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울기만 하던 젊은이가 차츰 어머니 봉사자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눈물을 그치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진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온 기쁨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수용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 또한, 대견하게도 ‘어떤 말에도 화내지 않기’, ‘남이 하기 싫은 일, 내가 먼저 하기’를 스스로 하느님과 약속하면서 머지않은 출소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느님! 이 젊은이가 다시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시기에,
죄인들을 한없이 가엽게 여기시어 함께하시기를 원하시고,
은총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는 분이, 제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이 사랑하는 수용자 형제자매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개소식



1월 22일(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별관 1층에서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사회사목국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비롯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상원 부위원장 신부, 김도훈 부위원장 신부,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김성훈 회장 신부, 유관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입소자 4팀이 참석해주었습니다.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카리타스사회적기업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출소자와 피해자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교육 자원 및 사회적 경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유경춘 주교는 "개인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사회의 선입견이나 불신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자기 일을 찾아 꾸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라며 "입주하시는 분들의 첫 스타트가 좋은 결과를 맺게 되면 뒤에 이어지는 분들이 더 확대되고 기회들이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을 품어본다"라고 입주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유경춘 주교는 입소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건네며 격려하였습니다.



출소자와 피해자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들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기에는 사회적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가 입소자들에게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 빛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벌은 최후에 주어야 한다

강기천 바실리오

전국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모임) 총회장
現 법무부 감찰관 감사담당관

+찬미 예수님!



먼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주님의 뜻에 맞게 그동안 수많은 신부님과 형제자매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실천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갇힌 자들을 관리하는 저로서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전국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모임)도 벌써 27년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제가 7대 회장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영세 후 5개 교구 8개 본당을 옮겨왔으니 이사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니 불만 느끼지 말고 가라’라는 메시지로 여기고, 새로운 임지에 가보면 틀림없이 제가 할 일이 있었고, 주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다른 분들은 갇힌 이들을 찾아갈 때 돈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는 제 직업이 교도관이다 보니 그럴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임지에 도착하면 직원들에게 “수용자들을 관리할 때 사랑이 먼저이고 벌은 최후에 주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제 말입니다. 직원들이 잘 따라 주고 수용자들도 감사하게 생각해주고, 그럼으로써 안정된 기관운영이 되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하여 그동안 각 교구 지도신부님과 수녀님들, 전국 성심회원 등 가는 곳마다 따뜻한 형제애로 감싸주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가득한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

신앙은 저 삶에 대한 완전한 투신과 삶의 본디 모습을 추구하는 일상의 열정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나를 생각하며, 다짐해 봅니다.

어쩌면 그저 힘겹게 사는 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그 시간을 거둬서 아무런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의 단상도 해 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겠지요.

가슴시린 세월의 무게만큼, 살면서 그리워하는 시간만큼 지나간 그리움에 눈물 섞인 눈물에 알뜰이 패이고 그 깊이만큼 아파했던 수많은 날들.. 을씨년스러운 한겨울의 여명 속에서 세월이 자워지는 하루하루는 오늘같은 내일, 내일 같은 오늘, 시간과 공간의 제약속에 갇힌 날의 힘겨운 고뇌. 자괴감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끓는 더운파로 더 많이 아파하고 고뇌해야 할 혼자만의 시간 속에 신부님의 당부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잘 버티어 내려 합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잊혀져 가는 것.

잊은 줄 알았다지도, 잊었다 믿었다지도 그렇그렇
고여 온 그리움들이 어떤 가슴 등세로 뚫려져 나오고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달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처럼 말합니다.

순백의 눈도 녹으면 잘려가리는 것으로.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기억의 비늘들을 떨어버려서
못하고 공중을 향해 뿔었던 분수같은 열정이 파닥지
처럼 잉커서 상처로, 흉터로 기억되는 파란의 기억도
있습니다.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 이 손편지가 신부님께
드리는 저의 이곳에서의 마지막 손편지가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냇물 매주 화요일 함께 뒀었던 거룩한
마사성제 집전해 주셔서 교우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플러쉬 없는 댄비우스의 때
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강경하시길 소원
합니다. 평화를
됩니다.

2020년 02월 05일.

From.

다정안드레아 드림.



2020년 4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59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0년 3월 2일(월) 11:00
- 장소 : 교정사목센터 2층 배움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 안건 :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 관심 있는 후원회원분들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13~2/12)

2020년 1월~2월에는 박건숙 율리아나, 신정주 요한, 신용규 프란치스코, 이재남 라파엘, 우민수 안드레아, 최병태 요셉, 정이현 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3월 2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9차 정기총회 / 교정사목센터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정시설 집회 및 미사가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후 원 신 청 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